

A Study on the Healing Interface around Void space of Contemporary Houses

현대주택의 허공간 주변의 치유적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

Kim, Jinhee* 김진희 | Kim, Kwangho** 김광호

Abstract

Purpose: Planning space of the house is important as a universal place to relieve stress of contemporary people. Void space is easy to perform mental and cultural programs in aspect of affording the healing behavior. The "Interface" accommodates healing behaviors through mutual interchange between void space and solid space as the edge of the solid space around void space. This study presents a efficient theory of healing space through combining space theory with the Kitwood's theory of psychiatry used for the art therapy. **Methods:** Spatial elements based on Kitwood's theory converges towards 2 behavioral elements; Meditation(-), Sense of Community(+). Balancing with reciprocal complement between behaviors of passive and stable "Meditation(-)" and active and released "Sense of Community(+)" was analysed. **Results:** "Facilitation" can be used in combination with "Flow(+)" as active factor. "Validation" is combined with "Prospect(+,-)", and divides into 2 factor ; "Recognition-Refreshment(-)", "Reaction-Social Exchange(+)". "Holding" is combined with "Refuge(-)" as passive factor. **Implications:** This study established concept of spatial healing elements in connection with theory of Psychiatry about Alzheimer that is extreme situation of stress. This study is expected to enhance the validity and efficiency in analysis of healing space.

Keyword Void Space, Healing Interface, Sense of Community, Meditation

주 제 어 허공간, 치유적 인터페이스, 공동체성, 사색행위

1. Introduction

1.1 Background and Objective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 또는 해소하기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지내는 보편적인 장소로서 주택의 역할을 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건축가들이 주택공간디자인에서 허공간(void space)을 도입하는 것은 미니멀리즘 디자인 트렌드의 한 이미지적 요소로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허공간의 역할은 단편적 이미지측면 보다 치유(healing)의 측면에서 고찰됨으로서 물리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인 요소들을 아우르는 총체적 스트레스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허공간은 일상적 기능을 담당하는 실공간(solid space)이 수행하기 어려운 비일상적인 치유적 행태들에 대한 지원(afford)이 가능하다. 즉 허공간은 실공간보다 정신적이며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기가 용이한 것이다.

본 연구는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현대주택의 공간디자인을 스트레스의 극한적 상태에 해당하는 치매(알츠하이머)의 치료 연구 대가인 톰 키트우드(Tom Kitwood)의 정신의학이론과 접목하여 고찰함으로써 보다 실질적 효율성이 높은 치유공간이론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인터페이스 개념은 허공간과 실공간이 서로 만나는 접점의 상호작용을 부각시킨 것으로 허공간 자체보다 건축공간 전체에 작용하는 허공간의 치유적 영향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1.2 Methods of Research

본 연구에서 주택공간 사례분석의 기준으로 "허공간, 피난처성, 조망성 및 흐름" 등의 공간요소¹⁾들은 톰 키트우드(Tom Kitwood)의 치매치료를 위한 정신의학이론과 연관지어 설정되었다. 그의 이론은 간결한 키워드들 - "안아주기, 확인하기 및 용이하게 하기" - 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것들 간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는 허공간의 치유성 분석을 위한 공간디자인 관련 키워드들의 상호보완적 대비성과 유사하다.

* Member, 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Architecture, Inha University (Primary author: rlawsgml344@naver.com)

** Executive Member,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e, Inha University

1) Kim, Kwang-Ho, 2004, 생태적 매트릭스 공간, 미건사, Seoul, pp.16

사례조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의 변동을 가져 온 2차 세계대전 이후(1945년)의 세계 각지의 주택작품 중에서 허공간이 있는 것들로 선정하였다. 각 사례는 상기한 키워드들을 기준으로 정성적인 평가방식으로 기술되었다.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치유(Healing)의 개념은 정적인 치유인 사색행위(Meditation)의 안정감(-)과 동적인 치유인 공동체성(Sense of Community)을 통한 해방감(+)간의 상호보완(Reciprocal Complement)적 균형성으로 설정하였다. 즉 킷우드의 이론을 토대로 정립된 네 개의 공간(space)요소들은 사색행위와 공동체성의 두 가지 행태(behavior) 요소로 수렴되어 이들간의 균형성을 통해 치유성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사례들이 분석되었다.

2. Tom Kitwood's Theory of Psychiatry and Healing Interface around Void Space

2.1 Kitwood's Three Interaction Methods in the Theory of Psychiatry

다음은 루스 아브라함의 저서 "치매와 미술치료"에서 중심으로 언급된 내용으로 본 연구의 공간치유개념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많은 착안점들을 지니고 있다;

톰 킷우드(Tom Kitwood)는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 환자들과 긍정적인 소통을 하기 위한 7가지 조건으로 인정하기, 교섭하기, 협동하기, 티메이션(Timelation:감각적 아로마 테라피 등의 치료행위), 칭찬하기, 기분전환하기 및 놀이하기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에 추가적인 세가지 정신치료학적 상호작용법으로 "용이하게하기(facilitation)", "확인하기(validation)" 및 "안아주기(holding)"를 제시하였다. 이 모든 것은 예술표현을 촉진하는 정서적 환경을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²⁾

치매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던 사람이 뇌의 퇴행으로 인지능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주는 뇌질환으로, '정신이 없어진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³⁾ 즉, 정신상태에 있어서 부재(不在)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매환자들을 위해 킷우드가 제시한 조건들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정신치료학적 3가지 상호작용법인 "용이하게하기(facilitation)", "확인하기(validation)"와 "안아주기(holding)"를 중점으로 하여 공간요소와 3가지 정신치료이론 사이의 연관성을 고찰하고 나아가 허공간의 치유성을 해석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킷우드에 의하면 치매 환자와 긍정적인 소통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며 예술표현을 촉진하는 정서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명되었다;

1) 용이하게 하기(Facili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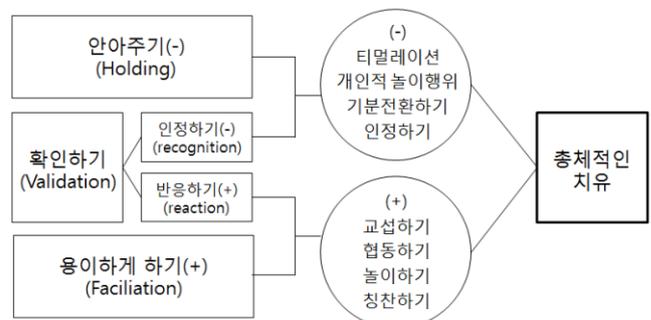
이는 특정 도움 없이는 무슨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치료사의 임무는 상호작용이 시작되게 도와주고 그 상호작용을 확대하며 환자들이 의미 있는 것으로 채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미술치료 맥락에서는 재료와 과제에 대한 치료사의 경험이 창조성을 되살리고 촉진시키는 데 중심 역할을 한다고 한다. 특히 꺼려하는 일, 자신감의 결여, 무경험 등이 닳았을 때 더욱 중요하다.

2) 확인하기(Validation)

각 개인의 주관적 세계를 인정(recognition)하고 그 감정상태에 따라 반응(reaction)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높은 정도의 감정이입이 있어야 하며, 그가 아무리 혼란한 상태, 편집증 상태, 혹은 환각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전체 틀 속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무엇이 환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든, 그것이 어떤 능력의 상태였든, 그것을 치료사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좀 더 나은 작품이 되게 도와주는 것이 환자로 하여금 좀 더 살아있고, 좀 더 연결되어 있으며, 좀 더 현실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다.

3) 안아주기(Holding)

개성의 통합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진행되고 있는 치료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숨겨진 트라우마(trauma)와 불일치를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심리학적 장소를 뜻한다. 마치 치료사는 환자의 전혀 다른 조각들을 함께 쥐고 그 조각들을 깨뜨리지 않는 것과 같다.



[Figure 1] Healing concept of Kitwood's Psychiatry Theory

2.2 Healing in the Interface around Void Space

건축가 승효상은 다음과 같이 허공간의 치유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 우리의 삶이 때때로 퇴보한다면서 "고대이집트 시대에 있었던 노동자들을 위한 집합주택이나 초고속통신으로 모든 설비를 조정할 수 있게 된 현대의 원룸 아파트 주거의 평면구조를 비견하면 그다지 달라진 게 없다. 조선시대의 선비가 살던 집의 평면을 잘만 모사하면 우리의 현대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놀라운 현대주택을 가지게 될 것임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Seung, Hyo-Sang et al., 2005: 20)⁴⁾

2) Ruth Abraham, 2008, 치매와 미술치료, 김선현 역, 미진사, Seoul, pp.149-151

3) 네이버(포털사이트) 건강백과

4) Seung, Hyo-Sang, 2005, The Canon of Architect, 1st edition, 열화당, Paju, pp.20

실제로 한옥은 허공간(Void space)인 마당(Madang)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간들이 상호간의 연계를 통해 보완 및 균형을 이루며 총체적인 치유환경을 이루고,⁵⁾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한옥 거주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5% 이상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여기서 강조된 마당의 허공간으로서의 치유성에 대한 언급은 총체적 특성과 연관된다. 현대건축의 미니멀리즘 디자인 트렌드에서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색적 이미지 차원이 아닌 한옥 마당 고유의 총체적 치유성 즉, 심리적 내면성과 사회성 모두를 아우르는 특성이 중요한 주제인 것이다.

또한 김광호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 허공간을 통한 궁극적 치유개념을 강조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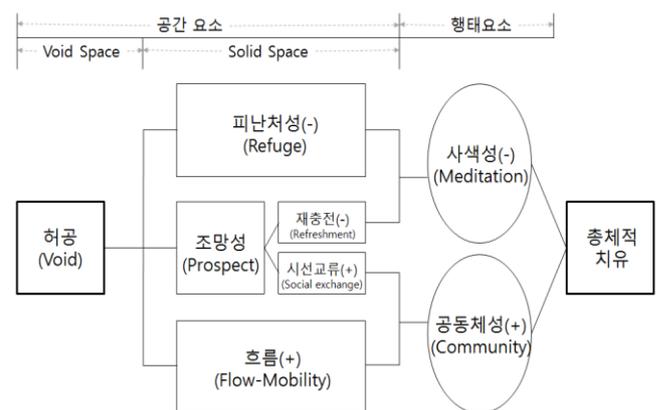
“허공간(Void space)”은 비워진 공간으로 불확정적이며 비밀상적인 무형의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기능과 쓰임새가 명확한 실공간(solid space)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허공간(Void space)의 불확정적 비밀상적 및 여유감은 내면적인 자유의 감정상태를 지원하는데, 이는 인간의 심리적 성숙과정에 있어서 자아실현의 개념과 같은 단계로, 삶에서 가장 적은 체험의 몫을 차지하나 가장 높은 단계이다.⁷⁾

허공간은 사전적으로는 “텅 빈 공중”이라는 ‘무(無)’의 의미로, 일상에서는 ‘허공으로 사라지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규정짓기 어려운 성격의 허공간이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어 허공간을 해석하였다. “허공간(Void Space)”은 활동적인 에너지가 삭감된 공간으로서 벽체나 슬라브의 뒹림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공간의 밀도가 낮은 곳 등이 해당되며, 긴장 등 감정의 압박에서 상대적인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이완과 팽창 상태의 공간인 것이다. 현대주택에서는 이러한 허공간이 주로 중정이나 공용공간의 천정오픈 형식으로 나타나면서 서로 다른 층에 위치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교류인 공동체성(Sense of Community(+))을 지원하고, 시간 및 장소에 따라 자연요소(빛, 물, 나무 등)와 함께 시적인 분위기를 자아냄으로써 자신과의 대화인 사색행위(Meditation(-))를 지원한다. 즉, 허공간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비밀상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내면적인 자유를 통하여 총체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터페이스(interface)”는 이 허공간과 실공간이 만나는 경계면으로 허공간과 가장 가까운 실공간의 가장자리를 의미한다.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서로 다른 측면이 상호교류하면서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기에 중요한 공간이다.⁸⁾ 즉, 인터페이스는 [Figure2]의 Solid Space에 포함되는 공간요소인 “피난처성”, “조망성”과 “흐름” 중 하나에 해당한다. 피난처성, 조망성, 흐름은 모두 양(+적인 요소와 음(-)적인 요소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지만, 주택에서는 공공시설과 달리 피난처성의 수동적인 음(-)적 요소와 흐름의 능동적인 양(+적 요소가 주로 형성되므로, 조망성만을 음양의 두 요소로 세분화 하였다.

인터페이스는 추상적 허공의 존재에 실제적으로 접하여 현실적 치유의 행위가 발생하는 곳이다. 이 치유적 행위는 음과 양의 측면에서 먼저 음적 요소인 피난처성(Refuge(-))과 재충전(refreshment(-))의 조망성(Prospect)은 독서, 종교활동(기도), 개인적 예술활동 및 반신욕 등의 정적인 방식의 치유를 통한 사색행위(Meditation(-))를 지원한다. 그리고 양적요소인 흐름(Flow(+))과 시선교류(Social exchange(+))의 조망성(Prospect)은 사회적 모임 및 단체예술활동 등 동적인 방식의 공동체성(Sense of Community(+))이 지원된다.

허공간은 건물의 기능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정신적으로는 꼭 필요한 공간으로써 그 주변 인터페이스에서 실공간의 요소 - 피난처성, 흐름 및 조망성 - 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음양의 치유 행위인 사색과 공동체성을 지원한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성(Sense of Community(+))은 능동적으로 타인과의 교류를 지원하는 것이고 사색(Meditation(-))은 수동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내면적 교류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색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과 공동체성을 통한 해방감 간의 상호보완작용(Reciprocal Complement)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총체적 치유공간의 특성을 보다 깊이 고찰 가능하다고 본다.



[Figure 2] The relationship diagram between Spatial elements and Healing

5) Im, Seok-Jae, 1999, 우리 옛 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 1st edition, 대원사, Seoul, pp.177-178 ; 한국의 전통건축은 체험적 휴먼 스케일이라는 서양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으로 건물간 거리, 마당 폭과 건물높이의 비례, 마당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의 건물을 바라보는 양각, 모서리의 벌어진 각도 등 여러 측면에서 인간척도와 조화를 이루며, 해방감과 안정감이 균형있게 지원된다.
 6) Lee, Chang-Jae ; Choi, il, Park, Seong-Jin, 2014, A Study on the POE of Rural Han-ok,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Rural Architecture Vol.16 No.1, KIRUA, pp17-26
 7) Kim, Kwang-Ho,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patial Expression & Emotional Character,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Vol.11 No.2, KHA, pp.63-71

8) Kim, Kwang-Ho, 2004, 생태적 매트리스 공간, 미건사, Seoul, pp.18

2.3 The Relationship between Kitwood's Psychiatry Theory and Spatial Elements

상기한 키트우드(Kitwood)의 치매(알츠하이머)환자 치료를 위한 정신 의학이론과 공간이론의 상호 관련성은 다음과 같은 구도로 결합되어 본 논문에서 치유성 분석을 위해 적용되었다;

1) 용이하게하기-흐름(Facilitation-Flow (+))

“용이하게하기”는 목표달성에 있어서 환자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도와줌으로써 환자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마찬가지로 공간요소 중 “흐름”은 목표지점으로 도달하기 위한 공간적 에너지의 발현과 관련되므로, 자신감이 갖는 능동적 역동성과 같은 맥락에 있다. 즉, 실행적 의미의 충족인 자신감 부여 측면에서 “용이하게하기(Facilitation)”와 “흐름(Flow(+))”이 연관된다.

2) 확인하기-조망성(Validation-Prospect(-,+))

“확인하기”는 깊은 감정이입을 통해 환자들의 상태를 이해하고 좀 더 나아지도록 도와줌으로써 환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조망성”은 내용적 실질성보다 형식적 타당성에 대한 추상적 개념이 더 중시되는 공간적 입장에서의 윤리적인 측면으로, 내면화되는 이미지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인간의 주관적 이치에 관여되는 자존감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윤리적 의미의 충족인 자존감 부여 측면에서 “확인하기(Validation)”와 “조망성(Prospect (-,+))”이 연관된다.

“확인하기”의 수동적 행위인 “인정하기(recognition)”는, 조망성의 수동적 행위인 “재충전(refreshment)”과 연관되고, 능동적 행위인 “반응하기(reaction)”는 “시선교류(social exchange)”와 연관된다.

3) 안아주기-피난처성(Holding-Refuge(-))

“안아주기”는 안전한 심리학적 장소와 같은 개념으로써, 환자들이 평온한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피난처성”은 인간에게 필요한 필수적 안전과 기능이 충족될 때의 공간적 보호감을 말하는 것으로, 자연적 이치에 해당하는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만족과 평온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즉, 만족감 부여의 측면에서 “안아주기(Holding)”는 공간의 생리적 기본요건을 구축하는 “피난처성(Refuge(-))”이 연관된다.⁹⁾

사례조사의 본문부분에서는 편의상 정신의학용어 부분은 생략하고 공간요소와 행위요소용어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3. Case Study

3.1 Analysis and Range of the Ob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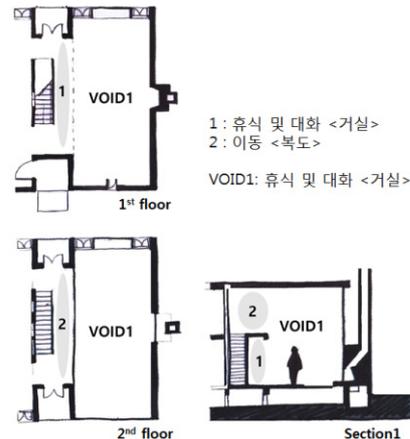
세계각지의 허공간이 있는 주택작품 중 1945년 이후의 주택을 현대주택의 사례로 선정하였다. 허공간(중정)의 위치에 따른 평면유형별로 서양에서는 ㄷ자형 1개, ㅡ자형 2개를, 동양에서

9) Kim, Kwang-Ho,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patial Expression & Emotional Character,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Vol.11 No.2, KHA, pp.65-66

는 ㄷ자형, ㄷ자형 및 ㅡ자형을 각각 1개씩 선정하였다. 분석내용은 주택 전체가 아닌 허공간 주변 인터페이스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그리고 수동적인 사색행위와 능동적인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음양의 상호보완성(Reciprocal Complement)을 위주로 하여 고찰하였다.

3.2 Case Study

1) Louis Kahn - Esherick House (Philadelphia, USA, 1959-1961)



[Figure 3] Floor Plan and Section of Esherick House



[Figure 4] Void1 and Interface1:2 of Esherick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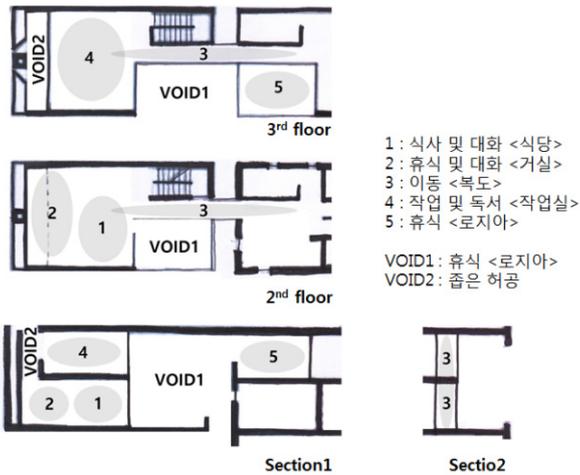
인터페이스1은 상부의 낮은 천장으로 인하여 큰 볼륨의 거실과 대비되는 휴먼스케일로 피난처적인 공간을 형성한다. 소파가 있는 아늑한 공간에서 넓은 거실 쪽을 조망하며 휴식을 취하는 정적인 공간으로 사색행위(Meditation)를 지원하고 있다.

인터페이스2는 통로로서 동적인 공간으로 허공간에 면하여 위층과 아래층간의 시선교류를 활발하게 하여 타인과 교감하는 행위인 공동체성(Sense of Community)이 지원된다.

2) Mario Botta - Ligornetto House (Ticino, Swiss, 1976)

이 주택의 허공간 주변 인터페이스는 상당히 다양한 성격으로 활성화 되어 있다. 인터페이스1은 식사 및 대화를 위한 공간으로, 가족 및 손님과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타인과의 만남을 통한 공동체성(Sense of Community)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간은 외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Void1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통하며, 빛의 도입에 있어서도

Void1에 접하여 채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내향적인 공간으로 사색행위(Meditation)를 지원한다.



[Figure 5] Floor Plan and Section of Ligornetto House

인터페이스2는 상부의 좁은 허공간인 Void2와 면하는 곳으로 휴식 및 대화가 이루어진다. Void2의 천창에서부터 은은한 자연광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으며 공간 크기는 적절한 휴먼 스케일로써 개방감과 폐쇄감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벽에 설치된 대형 벽난로를 통한 따뜻한 온도의 보호감각과 아늑함은 친밀한 대화를 가능케 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므로 공동체성과 사색행위가 모두 지원된다.



[Figure 6] Void2 and Interface2 of Ligornetto House



[Figure 7] Void1 and Interface3 of Ligornetto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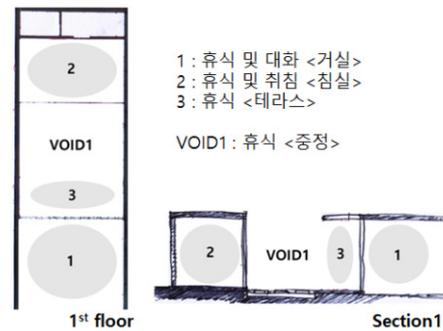
인터페이스3은 2층 및 3층의 복도로, Void1을 사이에 두고 두 동을 연결하고 있다. 다른 곳에 비해서 공간의 폭이 좁고 길게 형성되어 있어, 흐름과 피난처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동적인 공간이다.

인터페이스4는 작업 및 독서를 위한 정적인 공간으로 Void1과2 모두와 면하여 해소를 통한 치유적 효과가 큰 장소에 위치한다. 먼저 Void2의 천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인터페이스2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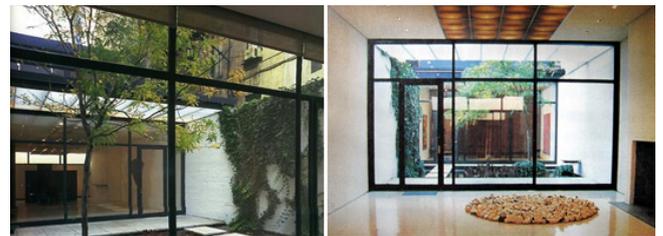
서와 마찬가지로 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Void1은 외부로의 조망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색행위를 지원한다.

인터페이스5는 3층의 침실전용 로지아로, 2층 로지아(Void1)에 비해 사적인 영역의 휴식공간이다. Void1과 엇갈린 배치로, 가족 간 교감을 가능하게 하므로 공동체성(Sense of Community)이 지원된다. 그러나 Void1보다 낮은 천정으로 인해서 피난처성을 형성하면서도 더 높은 곳에 위치하여 외부로의 조망이 보다 넓게 형성되는 정적인 공간으로, 편안한 시야각을 통해 하늘로의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동적 행태요소인 재충전을 통한 사색행위(Meditation)가 지원된다.

3) Philip Johnson - Town House (New York, USA,1950)



[Figure 8] Floor Plan and Section of Town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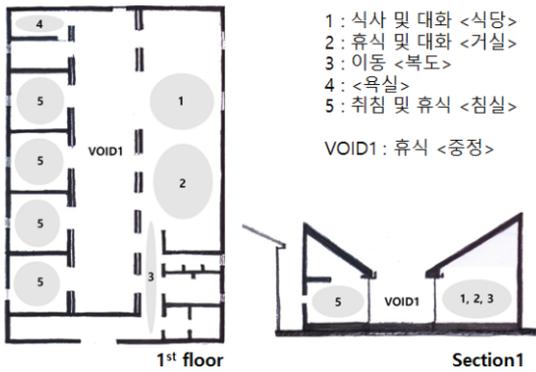
[Figure 9] Void1 and Interface1-2-3 of Town House

이 주택은 길고 좁은 형태로 흐름과 피난처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형태이나 중앙부를 과감히 뚫음(void)으로써 허공과 조망성의 형성을 통해 허공-흐름 및 피난처성-조망성 간의 상호작용구도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사면이 벽으로 이루어져있는 길고 좁은 이 주택에서 채광조건의 불리함을 Void1이 해결하고 있으며, 연못과 흰 벽에 반사되어 내부로 유입되는 빛과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연못, 나무, 담쟁이 등의 자연요소들은 실내공간인 인터페이스1-2에 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사색행위(Meditation)를 지원한다.

인터페이스3은 Void1 한쪽에 형성된 테라스이다. 중정의 연못에 면해있는 테라스의 처마아래공간은 마치 뒷마루에서 정원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자아내며¹⁰⁾, 하늘로의 수직적 조망은 재충전(Refreshment)을 통해 피난처-조망성의 균형을 이루며 사색행위(Meditation)를 지원한다. 또한 나무와 물, 분수대의 물소리,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따스하게 내리쬐는 빛 등은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며 자연과의 만남을 지원한다.

10) Nakamura Yoshifumi, 2004, 주택순례, 1st edition, 시공문화사, Seoul, pp.33

4) Kinoshita Michiro - Dog House (Tokyo, Japan, 2005)



[Figure 10] Floor Plan and Section of Dog House



[Figure 11] Void1 and Interface1-2 of Dog House

인터페이스1은 식사 및 대화를 위한 공간으로 개구부가 다른 개구부에 비해 보다 넓게 형성되어있는데, Void 중앙부 공용공간과 면해있음으로써 가족구성원간의 공동체성(Sense of Community)이 높게 지원되고 있다.

인터페이스2는 휴식 및 대화 공간으로, 소파는 벽을 등지고 Void1을 향해 설치되어 외부로 120° 이상의 수평 시야각을 확보하기 때문에 시야를 벗어난 부분의 폐쇄로 피난처성이 형성되어 조망성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¹¹⁾ Void1의 중앙부 및 동측부와 모두 연계되어, 공용공간의 가족들과 교감이 가능하면서도 자연을 통해 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므로 공동체성(Sense of Community)과 사색행위(Meditation)가 모두 지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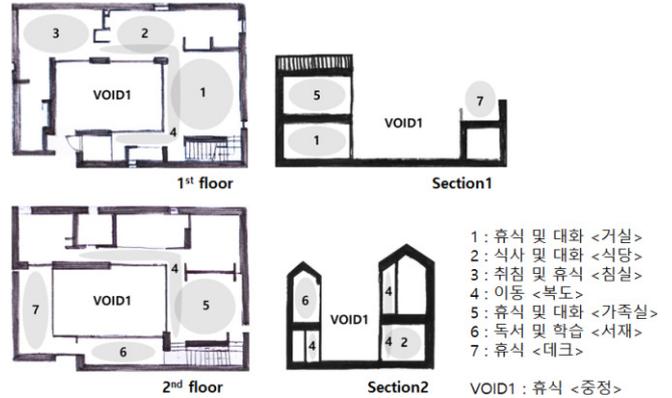
인터페이스3은 현관에서 주택내부로 들어올 때 지나가는 좁고 긴 형태의 이동통로로써, Void1을 향해 벽의 막힘과 뚫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피난처-흐름 속에서 허공-조망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외부로는 허공간의 동측부인 식재공간과 면해있어 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공간으로 시선이 유도되고 있다. 즉, 동선의 흐름과 시선의 흐름이 함께 형성되는 공간으로 자연(Nature) 및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 사색행위(Meditation)를 지원하고 있다.

인터페이스4는 욕실로써 욕조의 따뜻한 물속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듯한 보호감각을 주어 여기서 외부를 바라보는 것은 강한 피난처성-조망성 관계를 형성하여 치유적인 사색행위(Meditation)를 지원한다.

11) Kim, Kwang-Ho,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patial Expression & Emotional Character,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Vol.11 No.2, KIIHA, pp.65 ; 피난처성은 사용자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좌우 약 120도 및 상하 약 60도의 시야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의 보호적 조건으로서 시각적 형식성이 적용되지 않는 촉각적인 내용성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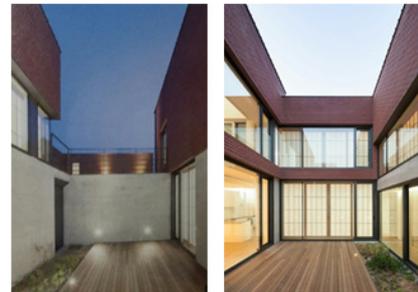
인터페이스5는 취침 및 휴식을 위한 개인방으로, 4개의 침실이 Void1을 따라 일렬로 배치되어있다. 실의 남쪽으로는 이웃집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개구부가 소극적으로 형성되었다. 여기서 빛의 유입이 적고 벽에 면한 곳이 많아 자칫 답답할 수 있으나 Void를 통한 조망성 형성으로 개방감을 주고 있다.

5) Jeong Soo-jin - Red Brick House (Gyeonggido, 2013)



[Figure 12] Floor Plan and Section of Red Brick House

인터페이스1은 가족 간의 대화를 위한 공간으로써 이동통로의 중앙에 형성되어있어 공동체성(Sense of Community)이 지원되지만, 중정을 통해 바라보는 하늘로의 조망은 수직과 수평 비례가 약 2.5로 한옥이 갖는 편안한 시야각¹²⁾과 근사치를 제공하므로 사색행위(Meditation)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인터페이스5(가족실) 또한 인터페이스1(거실)과 유사한 공간의 성격을 형성한다.



[Figure 13] Left; Prospect-Refreshment(-)

[Figure 14] Right; Prospect- Social exchange(+)

인터페이스2는 식사 및 대화 공간으로 안방으로 이동시에 필히 지나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인터페이스6의 사용자간 시선 교류가 발생한다. 또 중정을 통해 2층 서재의 가족구성원과 교감이 가능하므로 공동체성(Sense of Community)이 지원된다. 인터페이스3은 취침 및 휴식을 위한 사적인 공간으로, 개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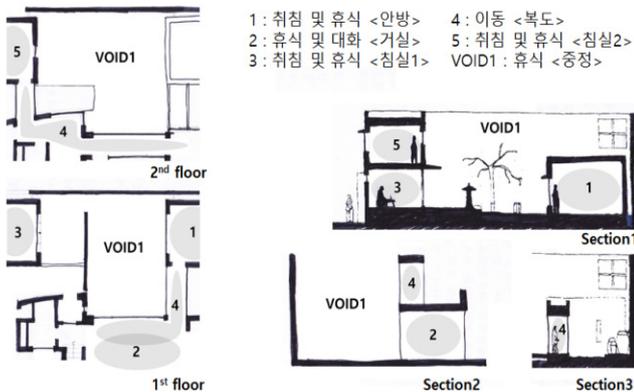
12) Im, Seok-Jae, 1999, 우리 옛 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 1st edition, 대원사, Seoul, pp.169-170 ; 한국의 중정은 마당의 한쪽 끝에 서서 반대편 건물 지붕 꼭대기를 바라보는 시선의 각도인 양각이 대부분 18~17도 사이로 나타나는데, 양각이 15~18도 사이일 경우 사람들은 인체공학적으로 보았을 때 목 근육에 긴장을 가장 적게 느끼면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다.

가 주택의 현관부와 마주하고 있어 출입하는 가족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적극적인 개구부를 통해서 공간 전체가 외부 Void1와 연계되는 다른 인터페이스들과는 달리, 벽과 면하는 부분이 많고 일부 공간만이 개구부를 통해 Void1와 면하면서 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내면적인 사색행위(Meditation)가 더 지원된다.

인터페이스4는 중정을 따라 이동하는 통행로로써 이동하면서 주택내부 및 외부의 변화를 조망할 수 있다. 내부로는 거실, 가족실 및 식사공간 등 공격영역과 연계되어 가족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외부로는 Void1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공간의 타인과 교류하는 행위 및 하늘로의 조망이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공동체성(Sense of Community) 및 사색행위(Meditation)가 모두 지원되고 있으나 흐름이 강한 가운데 공동체성이 보다 더 지원되고 있다.

인터페이스6은 작업 및 학습을 위한 서재로, 다른 공간에 비해 약간 낮은 바닥레벨을 가지며 독립적으로 위치해있다. Void1을 통해서 인터페이스2(식당)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 및 휴식을 하는 가족들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므로 공동체성(Sense of Community)이 지원되고 있다. 이 서재는 Void1 및 인터페이스7과 모두 연계되어 치유효과가 높는데, 인터페이스7은 서재를 위한 야외휴식공간으로 Void1 및 모든 인터페이스들을 수평적으로 바라보며 가족들과 교감하는 행위를 수용하므로 공동체성(Sense of Community)을 지원한다. 또한 중정보다 높은 레벨로 외부로의 탁 트인 시야와 하늘로의 수직적 조망은 재충전(Refreshment)행위와 더불어 사색행위(Meditation)를 지원한다.

6) Seuna Hvo-sana – Suioldana (Seoul, 1992-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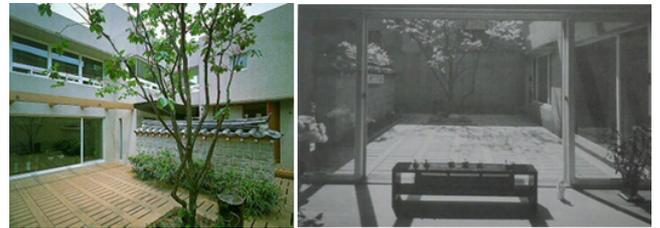


[Figure 15] Floor Plan and Section of Su-Jol-Dang



[Figure 16] Interface1 of Su-Jol-Dang

인터페이스1은 취침 및 휴식을 위한 개인적인 공간으로, 방의 개구부는 Void1에 설치된 한그루의 나무와 마주하고 있다. 이 나무는 자연(Nature)요소 이지만 철학적인 요소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사색행위(Meditation)를 지원한다고 본다.¹³⁾



[Figure 17] Void1 and Interface2 of Su-Jol-Dang

인터페이스2는 대화 및 휴식을 위한 거실로써, 앞선 사례 3.5와 마찬가지로 뒤의 벽쪽으로 소파가 배치되어 Void로의 조망성이 형성되므로 피난처와 조망성간의 상호작용구도가 형성되고는 있으나 시야의 폭이 비교적 좁다. 허공 남측의 2층높이의 벽과 나무는 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사색행위(Meditation)를 지원한다.

인터페이스3은 개인 방으로 [Figure15]의 단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수평적인 시선은 돌담에 의해 제한되고 하늘을 향한 수직적 조망만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사색행위(Meditation)가 지원된다. 인터페이스5는 인터페이스3의 바로 위층에 배치된 개인 방으로 1층의 가족과 시선교류가 가능하지만 편안한 시야각은 아니며, 작게 형성된 개구부는 수평으로는 벽과 마주하고 있으며 수직으로는 하늘로의 조망을 형성하여 정적인 사색행위(Meditation)가 주로 지원된다.

인터페이스4는 통행공간으로, 타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간의 폭이 좁고 길다. 또한 [Figure15]에서 알 수 있듯이 천정의 높이가 다른 공간에 비해 더 낮으므로 흐름-피난처성이 강한 가운데 Void1을 통해 허공-조망성이 형성된다.

3.3 Summary

[Table1]과 같이 각 사례의 인터페이스에서 허공간이 지원하는 사색을 통한 안정감(-) 및 공동체성을 통한 해방감(+)에 대하여 각 공간요소별로 정성적 평가를 하여 종합하였다. 각 요소의 항목별 평가는 정성적으로 음양의 해당방향 표기만으로 구분하였으나 그 합계인 균형도는 +-의 수치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허공간 주변 치유적 인터페이스의 균형도가 사례(1)은 +1, 사례(4)는 -1로 상호보완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

13) 동아일보, [지성의 나무]<10>건축사무소 '이로재' 대표 승효상 ; 르 코르뷔제, 루이스 칸, 루이스 바라간, 알베르토 자코메티, 리처드 세라 등 승효상이 좋아하는 건축가나 예술가들은 공통적으로 자기표현을 극도로 절제하고 억제하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반물질적, 반물질주의적이다. 건축가 승효상씨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간이 가진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러한 요소들을 사용했으며, 수출당 중정의 나무는 자코메티가 작업했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의 무대장치와 관련된 것으로, 실존주의 철학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례(2)는 -5로 수동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사색행위(Meditation(-))를 통한 안정감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사례(5)는 +6으로 능동적인 성향이 나타나며 공동체성(Sense of Community)을 통한 해방감이 주로 지원되고 있었다.

[Table 1] Estimation of The Sense of Healing in Each Case

사례/인터페이스	조망성		피난처성(-)	흐름(+)	음양균형도	균형도합계	
	재충전(-)	시선교류(+)					
(1)	1	O	O	X	-1	+1	
	2	X	O	O	+2		
(2)	1	O	O	O	X	-1	-5
	2	O	O	O	X	-1	
	3	O	X	O	O	-1	
	4	O	X	X	X	-1	
	5	O	O	O	X	-1	
(3)	1	O	O	O	O	±0	-2
	2	O	O	O	X	-1	
	3	O	O	O	X	-1	
(4)	1	X	O	X	O	+2	-1
	2	O	O	O	O	±0	
	3	O	O	O	O	±0	
	4	O	X	O	X	-2	
	5	O	O	O	X	-1	
(5)	1	O	O	X	O	+1	+6
	2	X	O	X	O	+2	
	3	X	O	O	X	±0	
	4	O	O	X	O	+1	
	5	O	O	X	O	+1	
	6	X	O	X	X	+1	
	7	O	O	X	X	±0	
(6)	1,3,5	O	X	O	X	-2	-3
	2	O	O	O	X	-1	
	4	O	O	O	O	±0	

4. Conclusion

치매는 노화과정에서 심신의 스트레스가 고착된 상태로써 일상적 사회활동을 대부분 제한시켜 그 환자의 대다수는 가정 즉 주택공간에서 물리적, 인간적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정신적 질환의 예방 역할이 다른 어떠한 장소보다 중요한 주택의 치유환경으로서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강조되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에 주로 활용된 키트우드의 정신의학이론과 공간요소이론간의 관계분석을 토대로 허공간 주변 인터페이스에서의 치유성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첫째, 미술치료에서 주로 활용하는 키트우드의 정신의학이론 중 "용이하게 하기"는 특정 도움 없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일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으로 자신감 측면에서 공간요소들 중 "흐름"과 연관되는 능동적인 요소이다. "확인하기"란 각 개인의 주관적 세계를 인정하고 그 감정상태에 따라 반응하는 것으로, 자존감의 측면에서 "조망성"과 연관되며, 그 중에서도

"인정하기"는 수동적인 행태로써 재충전과, "반응하기"는 능동적인 행태로써 "시선교류"와 관련이 있다. 또한 "안아주기"는 안전한 심리적 장소로써 만족감 측면에서 "피난처성"과 연관되는 수동적인 요소이다.

둘째, 주택내부에서 "허공간(Void space)"은 피난처성, 흐름 및 조망성과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음양의 치유적 행태를 지원한다. 그 중 피난처성과 재충전의 조망성은 사색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지원하고, 흐름과 시선교류의 조망성은 공동체성을 통한 해방감을 지원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이 음양의 상반된 요소가 서로 균형을 이룰 때 감정상태 역시 균형을 이루며 치유성을 갖는다는 전제 하에 상호보완(Reciprocal Complement)적 해석을 도모하였다. 여기서는 앞서 설정한 이론적 개념과 미학적 체험의 입장에서 주택의 허공간 주변 인터페이스를 해석하고 평가한 것으로, 음양(-,+)중 어느 한 성향에 치우친 주택이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공간성을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본 논문은 매우 일상적으로 접하는 주택공간에서의 치유환경의 분석을 위한 하나의 이론을 제시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치매라는 스트레스의 극한적 종점에 해당되는 상태의 치료에 관한 정신의학이론과 연계시킨 공간적 치유요소 개념의 설정은 보다 총체적인 치유공간 평가 및 해석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그를 표현하고 창작하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Reference

Choi, Kwang-Seok ; Kim, Gil-Chae, 2002, A Study on the Supportive Design Conditions for the Hospital Stress in Korea,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Vol.22 No.1, KIHA

Im, Seok-Jae, 1999, 우리 옛 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 1st edition, 대원사, Seoul

Kim, Hyeong-chan, 2003, [지성의 나무]<10>건축사무소 '이로재' 대표 승효상,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7000000494/3/7007000000494/20030616/7954722/1, DongA News, 2016.03.27

Kim, Jeong-Woon, 2013, A Study on Factors of Library's Space Organization for Social Healing , a Master's degree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Kim, Kwang-Ho, 2004, 생태적 매트릭스 공간, 1st edition, 미건사, Seoul

Kim, Kwang-Ho,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patial Expression & Emotional Character,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Vol.11 No.2, KIHA

Kim, Seon-Hyun (Translation), 2008, 치매와 미술치료 (Ruth Abraham, 2004, When Words Have Lost Their Meaning, Greenwood Pub Group, Santa Barbara, California), 미진사, Seoul

Lee, Chang-Jae; Choi, il, Park, Seong Jin, 2014, A Study on the POE (Post Occupancy Evaluation) of Rural Han-ok,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Rural Architecture Vol.16 No.1, KIRUA

Nakamura Yoshifumi, 2004, 주택순례, 1st edition, 시공문화사, Seoul

Nakamura Yoshifumi, 2014, 건축가가 사는 집, 1st edition, 디자인하우스, Seoul

Park, Cheul-Soo, Park, In-Seok, 2014, 건축가가 지은 집 108, 1st
edition, 도서출판 집, Seoul
Seung, Hyo-Sang, 2005, The Canon of Architect, 1st edition, 열화당,
Paju

접수 : 2016년 04월 15일
1차 심사 완료 : 2016년 05월 11일
게재확정일자 : 2016년 05월 11일
3인 익명 심사 필